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길

제1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9 페이지에 나와있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바울이 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는지를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빌립보서 1:1~2

묵상할 말씀 :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2절).

찬송 : 220장(통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맨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나 단어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제 2차 전도 여행 중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행 16:12) 도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그리스를 동서로 횡단하는 *에그나티아 도로 (Via Egnatia)*의 중앙에 위치한 군사 및 경제적 요충지였다. 은퇴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군 장교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던 빌립보에서는 위계 질서가 분명한 로마의 법이 지배하였고, 노예(종)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로마의 경제적 토대가 공고했다. 빌립보 사람들은 신분과 명예를 삶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사회적 성공과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그 도시 사람들로 하여금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갖게 하였다. 이에 반해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서로 평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다.

도움말 :

- 그리스도 예수(1절, 헬: 크리스투 예수): 이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우리의 “주(主)”이시다.
- 종(1절, 헬: 둘로이): ‘둘로이’의 단수형인 ‘둘로스’는 주인의 소유로서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성도(1절, 헬: 하기오이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 감독들(1절, 헬: 에피스코포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로서 후대에 나타난 교회 직분으로서의 감독들이라기보다는 목사들을 포함한 장로들(지도자들)을 일컫는다.
- 집사들(1절, 헬: 디아코노이): 장로들을 도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조력자들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의 일을 주로 하는 자들이다(행 6:1-7 참고).
- 은혜(2절, 헬: 카리스): 안녕을 뜻하는 헬라인들의 인사말인 ‘카이레인’을 대체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로써,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믿음, 용서, 구원을 의미한다. 바울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구원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도움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평강(2절, 헬: 에이레네):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인 ‘샬롬’의 헬라어 번역이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화해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안정과, 공동체 안의 조화,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포함한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는 동안, 나머지는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하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관찰 질문] 이 편지의 발신인(發信人)은 누구이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1절)

발신인은 바울과 디모데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해석 질문] 바울의 이러한 자기 소개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짐작하게 해줍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로 알려진 데살로니가전후서에는 바울을 포함한 3명의 발신인들의 이름만이 간단히 적혀 있을 뿐 아무런 직함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편지들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러한 자기 소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한 바울의 첫 인사말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인사말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낮추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막 10:45, 빌 2:7-8 참고)를 본받아 숭선수범해서 남을 섬기는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잘 드러내 준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사이에도 아무런 차별이 없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이다.

참고 사항)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들은 21권(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이다. 이 중에서 학자들이 바울의 편지라고 보는 책들은 13권(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편지가 위계 질서가 분명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편지와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발신인과 수신인이 서로 친구들 사이에 혹은 같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거울 질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들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바울의 이러한 자기 소개가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함이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며,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지도력과 무슨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직분을 권력으로 착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상은 남을 섬기는 종이라는 존재 의식이 희박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종의 본질을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놈들’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참고 사항) 영국의 시인 T. S. 엘리엇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세상 대신에 교회에 적용해도 맞는 말이다. 교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관찰 질문] 이 편지의 수신인(受信人)은 누구입니까?(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이다.

[해석 질문]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바울이 수신인으로 성도들 외에 “감독들과 집사들”을 따로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도움말 및 배경 설명 참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읽은 후에, 빌립보라는 도시의 성격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해 설명해 주자. 이 질문은 본서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담고 있기에 참가자들에게 답하게 하는 대신에 인도자가 설명을 해줘도 좋을 것이다.)

바울의 13개의 편지 모두에는 개인이나 교회 혹은 성도들이 수신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바울은 유독 빌립보서에서만 “감독들과 집사들,” 곧 교회의 직분자들을 수신인으로 덧붙여 거론한다. 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도시 빌립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분지향적이었고 성취지향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려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는 유오디아와 순두게 같은 지도자들이 “주(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종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음에 틀림 없다(4:2 참고). 그래서 그는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섬겨야 한다(2:1-11 참고)는 것을 이 편지에서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인들로서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한 것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감독들과 집사들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섬기는 자들임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거울 질문] 당신은 교회 직분자들이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나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어느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당신의 그리스도교는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도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한 것에 기인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번영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다. 간디의 눈에 비쳐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삼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의 지도자들인 “감독들과 집사들”이 간디의 눈에 비쳐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권면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상실한 채 교회 내에서 권력을 잡고 성공하기 위한 잘못된 정치가 횡행해 왔음을 보여 준다.

참고 사항) 간디가 한 다음의 말은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자 했던 말과 맥을 같이한다: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3. [관찰 질문]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인사하고 있습니까?(2절)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며 인사하고 있다.

[해석 질문] 바울의 이러한 인사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도움말 참조)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구원, 호의, 믿음, 용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강을 뜻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조화, 안전, 번영, 하나님과의 화목 등과 같이 은혜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결과이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준다. 바울은 이러한 인사말을 통해 성도들은 직분자나 비직분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존재됨을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직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과 축복의 선포인 것이다. 참고로, 빌립보교회는

내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3:2 참조)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4:2 참조)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29 참조).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러한 축복이 담긴 인삿 말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었을 것이다.

【거울 질문】 교회 안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축복할 때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상황에 따라 각자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슬픔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당신과 동행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에게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건네는 우리의 말에 생명과 능력이 담겨 있음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형편에 맞는 축복의 말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 살기

*인도자는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각자가 나누는 후에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자.

1.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산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것이 맞다.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하기에 주인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또한, 주인의 뜻을 잘 모를 때에는 주인에게 묻게 될 것이다. 각자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에 대해 나누어 보자. 예를 들어, 자신을 높이려는 대신에 낮추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섬김을 받기 보다 먼저 섬기려 할 것이다.

2. 우리 소그룹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대해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소그룹이 섬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 그 중 한 두 가지를 정하여 실천해 보자.